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기자회견문

수신	각 언론사 기자
발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문의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 010-5664-5905 김현지 카라 활동가, 010-6374-3109, arqus@ekara.org
발송일자	2017년 07월 11일 (화)

전국에 산재한 ‘쓰레기의 용광로’ 개농장과 폐기물관리 손 놓은 환경부를 고발한다.

음식쓰레기와 축산폐기물 관리를 개농장에 일임하고 방치한
환경부의 행정 테러를 고발하며, 동물을 쓰레기통으로 이용하는
개농장의 폐기물처리업신고 전면 취소를 요구한다.

- 개농장의 추가 사업은 폐기물처리업, 보신탕 수요 감소에도 개농장 이익 보전
- 포장은 사료화 재활용, 실상은 동물을 살아있는 쓰레기통으로 이용한 환경부
- 식약처와 농식품부, 축산물위생관리법, 사료관리법 이행여부 점검의무 방기로 직 무유기
- 방역 성공 위해서는 가금류 뿐 아니라 개에게도 남은 음식물 습식사료 금지 필요
- 문재인 정부의 전국 사육장 실태조사와 개선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대한민국은 공장식 ‘식용개 농장’이 실존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이고(2016,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건퍼런스. 카라) 전국에 최소 2,862개의 개농장에서 한 해 최소
100만여 마리의 개들이 배터리케이지에서 길러져 도살되며, 500마리 이상 키우는
기업형 개농장만도 422개에 달한다(2017년 6월 22, 정의당 이정미국회의원과 동물
보호시민단체 카라 공동기자회견). 그런데 단 한 두 명 혹은 서너 명이 개를 수백
마리, 많게는 수천마리씩 집단사육하는 대한민국의 공장식 개농장은 어떻게 생성되

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일까? 여기에는 대한민국 환경부의 폐기물 무단 투척 수준의 위법적 유기성폐기물관리와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직무유기가 연루되어 있다. 각 부처가 정교한 협의와 관리점검으로 철저한 법준수를 해야 할 바로 그 중요 영역에서 모든 부처의 행정태만과 무위가 큰 공백을 만들었고, 그 공백에서 폐기되거나 적법하게 재생해야 할 쓰레기를 손쉽게 확보한 개농장은 무한 번식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개농장이 몸집을 불리는 과정에서 동물학대의 만연, 공중위생의 위협, AI 등 전염성인수공통질병 방역 체계 와해, 약취와 해충발생으로 인한 혐오민원과 폐기물 2차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했으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시장 논리로는 설명 안 되는 기괴한 한국 대규모 식용개 농장

개를 식용목적으로 집단사육하는 행태는 인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이며 성공한 바도 없다. 개는 생태적으로 육식동물에 가까워 많은 동물성단백질을 필요로 하여 식용가족으로 대량 사육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중국 베트남 인도 등에서의 개식용이 다수의 주인 없는 떠돌이 개, 자유 배회하는 개, 훔친 개들을 대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한국은 전문적으로 개들을 최대 수천마리 이상 집단 사육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2014년 대형 개농장의 신규 설립 중단을 위한 법률적 대응과 필드 조사를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그동안 개농장이 유지되고 대형화 될 수 있었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개식용 수요는 급격히 줄고 국민의식도 나날이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이미 고착화된 대형 개농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개식용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어쩌다 ‘식용개’의 대량 사육을 하는 아니 식용개 대량 사육이 가능해진 지구상 유일한 ‘개농장의 나라’가 되었을까. 개들은 어떻게 자신이 도살되기까지 살아있는 동안 먹어야 하는 사료의 가격보다도 싼 체중 600g 당 2800~3000원(20Kg 대형 진돗개 한마리의 매매가격은 현시세로 9만~10만원)에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것일까? 개농장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 개들이 평생 뜰장에서 살아가면서 급여 받은 소위 ‘사료’에 이 현상을 이해하는 열쇠가 있다.

환경부와 개농장의 불법적 공생

- 개농장에 폐기물처리 프리패스 발권한 환경부-

음식쓰레기의 발생은 전세계적으로 주요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선진국 대부분이 배출자 비용 부과를 통한 음식쓰레기 줄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고 그럼에도 발생한 쓰레기의 재활용방안에 몰두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폐기물을 이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쳐 그 결과 원헨시의 경우 연간 5만 7천톤의 음식쓰레기를 이용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원헨시의 1천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쓰레기 처리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2012년 5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Mari에서는 음식쓰레기만을 이용한 독일내 최대규모의 바이오가스 생산 설비시설이 구축되어 구내식당, 학생식당, 영업소의 남은 음식, 튀김기름, 유통기한 지난 음식물쓰레기를 이용 7,000여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음식쓰레기가 공공 자원으로 재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500만톤의 막대한 음식쓰레기가 발생하고 있고,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재활용 방식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퇴비화와 동물사료화를 중심으로 가장 환경오염이 큰 매립과 소각 방식도 사용하며, 에너지원으로서의 친환경적 재생은 먼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충격적인 것은 환경부가 음식쓰레기 폐기 방식을 사료화에 기대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 외에도 지금 당장 사료화 재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개농장에 폐기물 관리에 관한 무소불위의 권한, 거의 특권을 넘어서는 프리패스 수준의 권한을 부여한 채 사실상 아무런 관리나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별첨1 - 폐기물 처리 흐름도 도식

음식폐기물은 허가 받은 재활용 업체에 의해 사료관리법의 기준을 준수하며 멸균과 살모넬라, 잔류 셀레늄 함량 등 검사를 거쳐 사료로서 공급되어야 하며, 현재 전국적으로 83개 허가받은 음식폐기물 재활용 사료화 업체가 운영중이다. 여기서 연간 약 110만톤의 음식폐기물을 가공하여 이중 재활용 사료로 회수된 40만톤(수율 37%) 이 주로 양돈 농가에 공급되며, 양돈 농가중 11개 업소가 음식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겸하여 얻은 후 생산된 사료를 자가소비하고 있다. 폐기물 1톤당 10만원 상당의 처리비용이 재활용사료 생산 업소에 지급된다. 이때 허가 업소는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의 처리시설도 병행하여 갖춘 후 의무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로 인한 2차적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산된 습식 또는 건식 사료가 동물 사료로 적절한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어쨌든 이것이 적법한 음식쓰레기의 사료화 과정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개농장에서 원하기만 하면 모든 개농장에게 음식쓰레기 처리업 신고 수리를 남발하고 있다. 즉 환경부는 영리를 위한 개농장 운영을 ‘자가 사육하는 가축에는 먹이는 경우’로 임의로 확대 해석하고, 이후 지켜져야 할 사료 관리법상 점검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채 개농장에 무차별 폐기물 관리 권한을 부여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개농장 개의 먹이로 남의 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받아 오는 것은 폐기물처리신고 유무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백번 양보하여 이 경우까지 자가 사육 가축으로 인정한다고 하여도 허가받은 재활용 업체들에게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사료화 과정, 즉 멸균과 살모넬라 등 검사, 잔류 중금속 등의 검사 과정 의무와 2차 폐기물 처리 의무가 동일하게 부과되어야 하고 법적으로도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몇가지 예를 들어본다. 개농장 문제가 심각한 경북 김천의 경우 총 33곳 폐기물처리신고업자 중 축종이 확인 안 된 6개 농장을 제외하고 27개 농장이 모두 개농장을 운영하며 자신이 키우는 개의 먹이로 사용하겠다고 폐기물처리업신고를 받았다. 이중 전**농장을 운영하는 한 업자는 개 370 마리를 키운다면서 이 개들의 먹이로 사용할 음식쓰레기를 무려 25개 대형배출장에서 수거한다. 여러 곳의 대형 배출장에서 음식폐기물 처리 대가로 수령한 수거 수익만 해도 상당금액이 될 것이다. 25개 업장 중에는 대학교1곳, 고등학교 1곳, 중학교 1곳, 초등학교가 무려 9곳이나 된다. 이렇게 막대한 음식쓰레기를 개 370마리가 소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으로 음식쓰레기의 2차 투기나 폐기 또는 불법 판매 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별첨2. 김천시 폐기물처리 신고(재활용)현황

별첨3.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처리 현황

또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중인 1000마리 규모의 개농장에 더해, 신규 거대 개농장을 추가 설치하려는 **훈씨도 제*환경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폐기물처리업신고를 하였으나 실상은 개농장 개들에게 급여하기 위한 신고이며 카라는 그의 개농장에서 음식물수거함 수십개가 쌓여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조금 떨어진 다른 개농장에서도 수거된 음식물쓰레기통을 실은 개농장 트럭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 차량에는 쓰레기함 수거를 위한 리프팅 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다.

별첨4. 개농장(제*환경)의 음식물쓰레기통 수거 적치 현장

별첨5. 김천 모 개농장앞의 쓰레기 수거 리프팅 설치 차량

김포의 만*농장의 경우도 폐기물처리업신고를 하였으나 그 업장의 상황을 보면 참혹하기 그지 없었다. 개농장인 업장은 개들의 분노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 한켠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과연 이런 곳에서 사료관리법에

다른 기준 점검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며, 수거해 온 폐기물의 2차 투기로 인한 오염과 공중위생 위하는 어떻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별첨 6. 김포 만*농장의 전경과 개들의 상황

별첨 7. 폐기물의 적나라한 2차 투기 실태 사진

축산폐기물의 방만한 처리 부분에 이르면 사태는 더욱 심각

축산폐기물은 도축장이나 도계장에서 발생한 검사불합격품이나 폐기되어야 할 가축의 신체 부분을 의미한다. 축산폐기물은 방역상 특히나 마지막까지 적정하게 폐기되어야만 한다. 도축장 도계장을 매개로 한 시와 같은 전염성 질환을 막고 축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관장하는 식약처가 폐기와 재활용의 기준을 제시하며 환경부는 이에 따라 적정한 폐기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즉, 축산폐기물은 도축장 도계장에서 랜더링 공정을 거쳐 가축 사료용 원료화 하거나, 도축장에 랜더링 시설이 없을 경우라면 허가받은 업자에게 인계되어 사료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가공 절차를 거쳐 재활용되어야 한다. 사료로서 재활용 할 수 없는 폐기물은 허가된 공장에서 비료화 등의 과정을 거쳐 퇴비로 재활용된다.

그러나 이런 정규 시스템 외에 음식쓰레기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법적 기준의 준수나 점검 없이 또다시 개농장에 축산폐기물처리 프리패스가 발행된다. 그 결과 도계장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축산폐기물의 상당부분을 역시 개농장에서 아무런 제한없이 가져간다. 이렇게 가져간 축산폐기물이 2차 유통이 되지 말라는 법이 전혀 없는 데다, 무엇보다 개사육장은 가축 방역의 치외 법권 지대로서 방역의 최대 사각지대임에도 무방비로 도계장이나 도축장과 연결되어 방역에 치명적인 허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도계장이나 도축장의 폐기물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 최종 처리되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추적도 불가능하다.

역시 예를 들어보자. 김포 개농장 밀집지역에 자리한 대규모 개농장인 대*농장의 경우는 음식쓰레기 뿐 아니라 축산폐기물의 처리까지 신고해 놓고 영업하고 있다. 대*농장에서 수거해 온 음식쓰레기와 축산폐기물은 도계장과 음식쓰레기 배출업소를 거쳐 대규모 개농장들이 수십 곳 모여 있는 김포의 개농장 밀집지대로 옮겨진다. 대*농장으로부터 다른 농장으로 음식폐기물이 분산될 수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축산폐기물도 다른 개농장으로 분산 될 수 있으며, 각각의 개농장에서 보신탄용 개를 납품하거나 각자의 음식쓰레기를 수거하러 다니면서 도계장이나 도축장의 바이러스를 온 세상으로 퍼뜨리지 말란 법이 없는 것이다.

별첨8. 김포 대*농장의 폐기물처리업신고증 사본

별첨9. 김포 개고기 벨리의 개농장 전경과 폐기물 급여 실태

환경부가 도계장 도축장 폐기물을 무방비로 개농장에 내 주고 있는 와중에, 농식품부는 개농장이 방역에 부과하는 치명적 위험은 등한히 한 채 앞으로 도계장에서 출하되는 모든 닭고기에 대해 시검사를 시행한다고 하여 제대로 엇박자•엉터리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폐기물 추적 시스템인 올라로(환경부와 환경공단운영)를 통해 파악한 축산폐기물(동물성재물) 반출 현황을 살펴보자. 역시 여러곳의 도축장 도계장에서 개농장으로 폐기물을 반출해 간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총 56개 도축장 또는 도계장 중 최소 6곳 도축장 폐기물을 ‘직접’ 개농장에서 반출해갔다. 확인 안된 더 많은 개농장이나 개농장으로의 2차적인 폐기물 유출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특히 4,000만 마리라는 초유의 살처분 사태를 초래한 이번 조류독감의 최초 발생지 충북 음성에 위치한 (주)**식품의 경우 22곳의 폐기물 인수자중 무려 10곳이 개농장으로 확인되었다. 10곳의 개농장은 충북 괴산 음성 진천 충주, 심지어 경기 김포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전남 나주의 개농장인 서*축산의 경우는 전북 정읍에 있는 오리 도축장 한곳 뿐 아니라 경기도 파주의 도축장으로 원정까지 가서 축산폐기물을 다량 수령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발생지 충북 음성에 위치한 (주)**식품의 경우 22곳의 폐기물 인수자중 무려 10곳이 개농장으로 확인되었다. 10곳의 개농장은 충북 괴산 음성 진천 충주, 심지어 경기 김포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전남 나주의 개농장인 서*축산의 경우는 전북 정읍에 있는 오리 도축장 한곳 뿐 아니라 경기도 파주의 도축장으로 원정까지 가서 축산폐기물을 다량 수령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별첨10. 2016년 동물성잔재물 배출처리내역

믿어지지 않는 충격적 현실-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한다

개농장이 대형화되고 개식용 수요 감소에도 농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우리나라 환경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사실상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개들을 음식쓰레기와 축산폐기물의 최종적 투기장소로 이용하였고, 개농장주들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도록 개입했고 나아가 지원했다. 개농장주들은 사료화 할 아무런 시설이나 준비 없이 폐기물처리업자로 둔갑하여 공짜로 얻어지는 음식쓰레기와 축산폐기물을 개들에게 먹였으며 폐기물 수거업자로서 여러 곳에서 업소당 수십만원에 이르는 수거비를 수령하여 이종의 이득을 취해왔다. 소 돼지 닭 등 다른 허가 축종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초법적 특권을 누리 왔다 말해도 전혀 틀린 언급이 아니다.

식용개 사육업자가 생명이자 반려동물인 개를 어떻게 여기는지는 육견협회에서 농식품부에 법인 신청을 하면서 제시한 협회의 목적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들은 법인화를 꾀하면서 자신의 설립 목적을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및 폐기물 관리 등”이라고 스스로 명시했다. 농장동물들의 감금틀도 추방하고 생태 복지농장을 추구하는 이 마당에 이들은 인류의 반려동물 개를 자기들 이익 추구를 위해 음식쓰레

식용개 사육업자가 생명이자 반려동물인 개를 어떻게 여기는지는 육견협회에서 농식품부에 법인 신청을 하면서 제시한 협회의 목적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들은 법인화를 꾀하면서 자신의 설립 목적을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및 폐기물 관리 등”이라고 스스로 명시했다. 농장동물들의 감금틀도 추방하고 생태 복지농장을 추구하는 이 마당에 이들은 인류의 반려동물 개를 자기들 이익 추구를 위해 음식쓰레

식용개 사육업자가 생명이자 반려동물인 개를 어떻게 여기는지는 육견협회에서 농식품부에 법인 신청을 하면서 제시한 협회의 목적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들은 법인화를 꾀하면서 자신의 설립 목적을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및 폐기물 관리 등”이라고 스스로 명시했다. 농장동물들의 감금틀도 추방하고 생태 복지농장을 추구하는 이 마당에 이들은 인류의 반려동물 개를 자기들 이익 추구를 위해 음식쓰레

기와 축산폐기물 처리용 도구, 살아있는 폐기물 처리용 쓰레기통으로 여기고 있음을 스스로 밝힌 셈이다. 이런 동물복지의 최대 걸림돌 집단이 지금 그간의 부당 이득 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기득권을 주장하기까지 환경부 주도하에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방관하고 거들면서 이익 보전을 하도록 지원해 온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한국 유일의 대규모 개농장이다. 바로 이게 우리가 처한 수치스럽고 경악스러운 현실이다. 이런 이익집단 손아귀에서 인간에게 사역하고 1만 5천년 유대를 이어온 개들이 연간 백만 마리 이상 비참하게 사육 도살되는 건 문명국가의 수치라 할 만하다.

별첨11. 육견협회 법인 신청 반려자료

정부는 2016년 말 발생한 시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구수의 80%에 해당하는 4,000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대재앙 이후 농식품부는 4.13 방역 개선 대책을 내 놓으면서 “남은 음식물로 만든 습식사료(수분함량 14% 이상)를 닭, 오리 등 가금류 급여를 금지”하며, “위반시 제조업체와 사료로 먹인 가금농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조치를 통해 시 등 가축질병 방역관리가 취약한 농가의 차단방역 의식을 높이고, 남은 음식물로 만든 사료의 품질과 위생 및 환경문제 해소에 기대한다며 습식사료는 수분 함량이 많아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 부패·변질 가능성이 높아 비위생적이고 사료의 품질·안전성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악취로 인한 농장 주변의 환경관리 미흡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크다고 말하고 있다. 가금류에게 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남은음식물사료도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무 기준 없이 전국 수천곳의, 심지어 어디에 존재하는 지도 알 수 없고 방역의 의무도 지지 아니하는 개농장으로 흠뻑려지는 음식쓰레기와 축산폐기물은 수백 수천배 심각한 문제일 것이나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무책임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진실로 한국 개농장은 축산폐기물과 음식쓰레기 두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공중위생과 환경오염 해충의 발생과 냄새로 인한 신체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문제적 지점이다. 또한 전세계 초유로 개들을 배터리 케이지에서 뜯장 사육하면서 동물들의 신체적 정신적 인내를 시험하는 동물학대의 시험장이자 집합소이다. 추가적으로 치명적인 방역의 구멍으로 작용한다. 이곳 개농장에 음식쓰레기와 축산폐기물이라는 물질을 대 주며 키워온 환경부, 이를 말리기는커녕 거들어 온 농식품부와 식약처, 나아가 우리나라 정부는 대형 개농장이 전국에 난립하게 하여 기득권을 주장하게 만들며 문제를 악화해 온 장본인들이다. 평생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며 재난 현장에서 사람을 위해 사역하고 무엇보다 가족이 되어 기쁨과 위안을 주는 인류의 반려동물 개들을 마치 살아있는 쓰레기통처럼 다루며 사실상 학대하거나 학대를 방임해 온 데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까지는 말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엄연히 지켜져야 할 법을 무시하고 방만한 행정 테러를 저지르거나 무위로 일관해 온 그간의 행태는 통렬히 반성하고 교정해야만 한다. 무엇을 새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키고 점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 그리고 식약처는 ① 개농장에 남발된 폐기물 처리업 신고증 즉각 철회 회수 ② 가금류 뿐 아니라 개에게도 남은 음식물 습식 사료 급여의 금지 ③ 축산폐기물의 개농장 반출을 즉각 중단 해야 한다. 또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한 바 있는 “전국적 (개사육장)실태조사와 동물학대, 환경, 방역상의 문제 파악 및 해결방안 도출에 나서야 한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위에 열거한 정당한 요구가 빠른 시일내 수용되어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환경부 장관과의 조속한 면담과 환경부의 전국적 개농장 음식쓰레기등 폐기물 급여 실태조사의 즉각적 실시를 아울러 요청한다.

별첨자료 일람:

- 별첨1.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흐름도 도식
- 별첨2. 김천시 폐기물처리 신고(재활용)현황
- 별첨3.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처리 현황)
- 별첨4. 개농장(제*환경)의 음식물쓰레기통 수거 적치 현장
- 별첨5. 김천 모 개농장앞의 쓰레기 수거 리프트 설치 차량
- 별첨6. 김포 만*농장의 전경과 개들의 상황
- 별첨7. 폐기물의 적나라한 2차 투기 실태 사진
- 별첨8. 김포 대*농장의 폐기물처리업신고증 사본
- 별첨9. 김포 개고기 벨리의 개농장 전경과 폐기물 급여 실태
- 별첨10. 2016년 동물성잔재물 배출처리내역
- 별첨11. 육견협회 법인 신청 반려자료(농식품부)

참고자료1. 2017 음식물류 폐기물의 사료화 재활용 사업장 일제 점검 체크 리스트
_카라제공

(별첨2. 별첨3. 별첨7. 별첨9. 별첨10의 자료출처 :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
나머지 자료의 출처 및 상기 자료 분석: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별첨 1>.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흐름도 도식

반려동물 '개'를 폐기물 쓰레기통으로 사용한 환경부

환경부 폐기물 관리의 총체적 책임

폐기물관리법의 재활용의 유형

① 사료생산 ② 자가사육가축의 먹이로 사용

① 축산폐기물 사료화
랜더링 공정 후(도계장, 도축장, 허가받은 업소) 사료원료로 재가공

① 음식폐기물 사료화
83개 허가업체 (멸균/성분/오염검사) 연간 100만톤 사료화: 40만톤 이용(돼지, 닭)

개농장 폐기물처리업 신고 남발 재활용 기준준수 여부 점검 안함

축산폐기물 음식폐기물

개에게 임의 급여 자가사육하는 가축 X
개=폐기물쓰레기통 사료관리법 준수 X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전면 위반

환경부·농식품부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동물보호법
준수여부 방치

식약처
축산폐기물 관리 부재 (검사불합격품 용도전환 이라는 독소조항 규정)

동물학대, 약취, 해충, 민원유발, 시 등 전염병 방역 사각지대, 공중위생 문제, 음식쓰레기 오염으로 인한 질병 전파, 폐기물 2차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별첨2>. 김천시 폐기물처리 신고(재활용)현황

폐기물처리신고(재활용) 현황				
연번	농장명	대표자	사업장주소	신고일
합계	32			
1	○○축산	금○○	농소면	2008.04.14.
2	○○농장	박○○	농소면	2008.05.01.
3	○○농장	지○○	대항면	2010.10.26.
4	○○농장	강○○	구성면	2010.10.26.
5	○○○농장	허○○	구성면	2010.11.05.
6	○○환경	전○○	대광동	2011.02.08.
7	○○○농장	김○○	감천면	2012.02.01.
8	○○축산	임○○	조마면	2012.04.06.
9	○○○농장	최○○	아포읍	2012.05.03.
10	○○○농장	육○○	감문면	2012.05.04.
11	○○○농장	김○○	지례면	2012.05.04.
12	○○○농장	강○○	구성면	2012.05.04.
13	○○○농장	오○○	봉산면	2012.05.04.
14	○○○농장	김○○	봉산면	2012.05.15.
15	○○농장	김○○	조마면	2012.05.29.
16	○○농장	이○○	조마면	2012.06.11.
17	○○농장	이○○	구성면	2012.06.11.
18	○○○농장	유○○	봉산면	2013.03.07.
19	○○○농장	이○○	감문면	2013.05.22.
20	○○○농장	박○○	봉산면	2013.08.01.
21	○○농장	김○○	감문면	2013.09.12.
22	○○○농장	김○○	농소면	2014.02.28.
23	○○○농장	임○○	구성면	2014.03.10.
24	○○농장	김○○	조마면	2014.05.21.
25	○○농장	이○○	대항면	2014.05.30.
26	○○○농장	김○○	봉산면	2014.07.10.
27	○○○농장	김○○	어모면	2014.10.15.
28	○○○농장	전○○	농소면	2014.11.05.
29	○○○농장	육○○	농소면	2015.01.14.
30	○○○농장	김○○	감문면	2015.06.24.
31	○○농장	조○○	감천면	2015.08.25.
32	○○농장	전○○	농소면	2016.03.14.

노란표기 - 개사육장으로 확인된 농장

갈색표기 - 개사육장중 무려 25개 대형 배출업소로부터 음식물폐물을 수거하는 개농장

<별첨3>.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처리 현황

연번	사업장명	배출물종류	배출량(톤/년)	처리업체명	처리량(톤/년)	처리비(백만원)
96	루고동보지	경상북도 집진시	293.231	동반물식설	293.231	경상북도
97	(주)경주호박재활용사업장	경상북도 집진시	950	집단굴삭소	950	충청
98	(주)유합	경상북도 집진시	320	집단굴삭소	320	충청
99	경북도립강릉노인요양시설	경상북도 집진시	600	집단굴삭소	600	충청
100	김천고용학교	경상북도 집진시	2420	집단굴삭소	2420	충청
101	김천시청(청사본관)	경상북도 집진시	270	집단굴삭소	270	충청
102	김천시청(청사별관)	경상북도 집진시	880	집단굴삭소	880	충청
103	김천시청(청사별관2)	경상북도 집진시	3420	집단굴삭소	3420	충청
104	포스코에너지(주)리호(포스코에너지2공장)	경상북도 집진시	200	집단굴삭소	200	충청
105	포스코에너지(주)리호(포스코에너지1공장)	경상북도 집진시	950	집단굴삭소	950	충청
106	북원직장	경상북도 집진시	200.15	동반물식설	200.15	충청
107	구미의 신음향	경상북도 집진시	212.46	동반물식설	212.46	충청
108	고기거래처	경상북도 집진시	234.7	동반물식설	234.7	충청
109	북원발전사업장	경상북도 집진시	240.28	동반물식설	240.28	충청
110	미스타피자	경상북도 집진시	244	동반물식설	244	충청
111	IG인물화석상	경상북도 집진시	248	동반물식설	248	충청
112	한빛아쿠아리움(보물)	경상북도 집진시	275.35	동반물식설	275.35	충청
113	주식회사 나무	경상북도 집진시	285.12	동반물식설	285.12	충청
114	어미방	경상북도 집진시	293.4	동반물식설	293.4	충청
115	(주)신승테크(부동)	경상북도 집진시	390.57	동반물식설	390.57	충청
116	다우초등학교	경상북도 집진시	850	집단굴삭소	850	충청
117	(주)이득을 한국 GMT 김천점	경상북도 집진시	600	집단굴삭소	600	충청
118	(주)이득을 한국오원스프링김천점	경상북도 집진시	400	집단굴삭소	400	충청
119	가람푸드서비스(주)한국김천기밀	경상북도 집진시	2250	집단굴삭소	2250	충청
120	경북보건대학교	경상북도 집진시	900	집단굴삭소	900	충청
121	경북초등학교	경상북도 집진시	600	집단굴삭소	600	충청
122	김천다우초등학교	경상북도 집진시	420	집단굴삭소	420	충청
123	김천동부초등학교	경상북도 집진시	890	집단굴삭소	890	충청
124	김천동신초등학교	경상북도 집진시	1300	집단굴삭소	1300	충청
125	김천부곡초등학교	경상북도 집진시	850	집단굴삭소	850	충청
126	김천서부초등학교	경상북도 집진시	170	집단굴삭소	170	충청
127	김천여자중학교	경상북도 집진시	850	집단굴삭소	850	충청
128	김천중앙초등학교	경상북도 집진시	350	집단굴삭소	350	충청
129	봉서초등학교	경상북도 집진시	180	집단굴삭소	180	충청
130	지리중학교, 고등학교	경상북도 집진시	170	집단굴삭소	170	충청
131	하나물마루	경상북도 집진시	1404	대규모정설	1404	경상북도
132	(주)수마루	경상북도 집진시	5816	대규모정설	5816	경상북도
133	(주)케이원지(김천공장) 국내직장	경상북도 집진시	150	집단굴삭소	150	경상북도
134	(주)삼일식품(김천)부산발(포계소)	경상북도 집진시	487	포계물식설	487	경상북도
135	(주)삼일식품(김천)서울발(포계소)	경상북도 집진시	487	포계물식설	487	경상북도
136	미각양양탕	경상북도 집진시	215.93	동반물식설	215.93	경상북도
137	김천과주포탈	경상북도 집진시	895.61	동반물식설	895.61	경상북도
138	충북향교계소(부산)	경상북도 집진시	588.8	포계물식설	588.8	충청북도
139	충북향교계소(서울)	경상북도 집진시	1898.43	포계물식설	1898.43	충청북도
140	유지가마	경상북도 집진시	474.56	동반물식설	474.56	충청북도
141	영역스튜디오(상한전자)	경상북도 집진시	600	집단굴삭소	600	경상북도

전** 농장은 25개 대형 배출업소로부터 음식물폐기물을 수거한다.
전** 농장은 개 370 마리를 사육한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농장이다.

<별첨4>. 개농장(제*환경)의 음식물쓰레기통 수거 적치 현장



열악한 환경의 제*환경 개사육장



개들 칠장 바로 옆에 적재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함들

<별첨6>. 김포 만*농장의 전경과 개들의 상황 및 폐기물처리업자신고증



만*농장의 변 처리 상태

민원서류

접수번호: 85915

접수일자: 2012. 06. 27

처리일자: 제56호서식1 (개정 2011.9.27) (앞 쪽)

처리과 기록물: 폐기물처리

처리기간: 14일

신고서
 변경신고서

신고인	① 장 (명칭)	만복농장	② 사업 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⑤ 주소(사무실)	경기도 김포시		
	⑥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⑦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구분 범조항(용도 및 방법)			
	⑧ 재활용대상 폐기물			
	⑨ 재활용제품			
	⑩ 시설 현황 (종류, 규격, 수량)			“따로 붙임”
	⑪ 1일 처리능력			
	⑫ 수집·운반차량 현황 (종류, 톤수, 대수)			
	⑬ 재활용공정도			
	⑭ 영입개시일			
⑮ 보관시설 및 보관량	규격(m)	용량(m ³)	수량(개소)	보관대상 폐기물
		“따로 붙임”	“따로 붙임”	허용보관량(톤)
⑯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⑰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변경) 신고를 합니다.

2012년 06월 일

신고인 만복농장 대표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따로 붙임 ”

⑦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구분 법조항(용도 및 방법)	폐기물관리법 제46조 폐기물처리 신고 ①항 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②항 1호 (음식물류폐기물류를 수집·운반하여 자신의 가족의 먹이로 재활용)				
⑧ 재활용대상 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⑨ 재활용제품	자신의 가족의 먹이				
⑩ 시설 현황 (종류, 규격, 수량)	절단시설(5HPx1)		사료화시설(0.4㎡x1)		
	절단시설(15HPx1)		사료화시설(2.46㎡x1)		
⑪ 1일 처리능력	음식물류폐기물 2톤/일				
⑫ 수집·운반차량 현황 (종류, 톤수, 대수)	90두		0.8톤 x1대		
⑬ 재활용공정도	수집·운반→이물전제기→절단→사료화→자신의 가족의 먹이로 재활용				
⑭ 영업개시일	2012. 06.				
⑮ 보관시설 및 보관량	규격(m)	용량(㎡)	수량 (개소)	보관대상 폐기물	허용보관량 (톤)
	400L X 400W X 1000H	0.16	20	음식물류폐기물	3.12
∅600 X 700H	0.2	10			

본 문서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All Rights Reserved.

본 문서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All Rights Reserved.



본 문서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All Rights Reserved.



본 문서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All Rights Reserved.



본 문서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별첨7> 폐기물의 적나라한 2차 투기 실태 사진

본 문서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All Rights Reserved.

본 문서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음식물폐기물 수거 업체인 개농장 뒤편 공터에 다량 폐기된 음식물쓰레기

본 문서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All Rights Reserved.

본 문서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All Rights Reserved.



본 문서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All Rights Reserved.



본 문서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All Rights Reserved.



본 문서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본 문서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All Rights Reserved.

본 문서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All Rights Reserved.



본 문서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All Rights Reserved.



본 문서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All Rights Reserved.



본 문서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본 문서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All Rights Reserved.

본 문서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본 문서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All Rights Reserved.

본 문서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All Rights Reserved.



본 문서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All Rights Reserved.



본 문서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All Rights Reserved.



본 문서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본 문서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All Rights Reserved.

본 문서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All Rights Reserved.



본 문서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All Rights Reserved.



본 문서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All Rights Reserved.



본 문서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별첨8>. 김포 대*농장의 폐기물처리업신고증 사본

- 740 -
- 720 -

2012 03. 19.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1.9.27> (앞 쪽)

No 12.4.3

<input checked="" type="checkbox"/> 폐기물처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고서		처리기한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14일	
신	① 상호(명칭)	대곶농장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또는 법		
인	⑤ 주소(사무실)	경기도 김포시	인등록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⑦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구분 법조항(용도 및 방법)					
⑧ 재활용대상 폐기물					
⑨ 재활용제품					
⑩ 시설 현황 (종류, 규격, 수량)		"따로 불임"			
⑪ 1일 처리능력					
⑫ 수집·운반차량 현황 (종류, 톤수, 대수)					
⑬ 재활용공정도					
⑭ 영업개시일					
⑮ 보관시설 및 보관량	규격(m)	용량(m ³)	수량(개)	보관대상 폐기물	허용보관량(톤)
		"따로"	"불임"		
⑯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⑰ 변경사유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변경) 신고를 합니다.

2012년 03월 일

신고인 대곶농장 대표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741 -
- 721 -

“따로 붙임”

⑦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구분 및 방법	폐기물관리법 제46조 폐기물처리 신고 ①항 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②항 1호 (음식물류폐기물 및 동물성잔재물을 수집·운반하여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및 자신의 농경지 퇴비로 재활용)				
⑧ 재활용대상 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동물성잔재물				
⑨ 재활용제품	자신의 가축의 먹이 및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				
⑩ 시설 현황 (종류, 규격, 수량)	질단시설(10HPX2), 사료화시설(3.85㎡X1), 퇴비화시설(468㎡X1)				
⑪ 1일 처리능력	음식물류폐기물 3.2톤/일, 동물성잔재물 7톤/일				
⑫ 수집·운반차량 현황 (종류, 톤수, 대수)	91대, 1.0톤 x1대				
⑬ 재활용공정도	수집·운반→이물질제거→질단→사료화→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수집·운반→이물질제거→퇴비화→자신의 농경지 퇴비로 재활용				
⑭ 영입개시일	2012. 04.				
⑮ 보관시설 및 보관량	규격(m)	용량(㎡)	수량(개소)	보관대상 폐기물	허용보관량(톤)
	∅700 X 520H	0.2	40	음식물류폐기물	4.8
	13.7m x W3.45m x H3.7m	47.23	1	동물성잔재물	175.07
	15.6m x W4.5m x H2.0m	50.4	1		
16.4m x W5.5m x H2.2m	77.44	1			

별첨9. 김포 개고기 벨리의 개농장 전경과 폐기물 급여 실태



<별첨10> 2016년 동물성잔재물 배출처리내역 (붉은 글씨는 개농장으로 확인된 곳)

2016년 동물성잔재물 배출처리내역

배출자	처리자	인수량(톤)
총 계		138,154
(사)명장기업 (강원 공장)	그린바이오영농조합(춘천)	1,130
쥬글과 (충북 청원)	쥬사조현더텍	3,781
	쥬수울	778
쥬농업목우촌 김제특육가공공장 (전북 김제)	쥬농창업엔티 진천2공장	391
	농업회사법인화정바이오쥬	381
	농협목우촌비료사업소	4,675
쥬대오(충남 부여)	쥬수울	523
	쥬안성사료	9
	쥬태극유지	451
	개농장-충남 청양	534
쥬안나(전남 화순)	정우농장	531
	쥬광복유지	809
	농성영농조합법인	338
	보성축협단미사료공장	160
쥬모란식품(충북 음성)	쥬고려그린	362
	쥬화인	923
	가나안농장	200
	강승구농장(개농장-충북 음성)	64
	강원농장(개농장-충북 진천)	86
	괴산농장	2
	금왕농장	69
	개농장-충북 괴산	284
	대정농장	199
	무지개농장	281
	개농장-충북 음성	275
	부원농장(개농장-경기 김포)	29
	삼곡농장	82
서원농장(김진걸)(개농장-충북 진천)	53	
축사(개농장-충북 괴산)	38	
열린농장	357	
농장(개농장-충북 음성)	292	

쥬명농(경기 공택)	명농인들	400
	쥬고려그린	427
	쥬수울	678
쥬합효산업(울산 울주)	쥬아미팜	14
	쥬엔이텍	8
	상녕영농조합법인	545
쥬희마르(강원 인제)	쥬수울	454
	개농장-충북 제천	146
	성우농장(개농장-충남 천안)	82
	우룡농장	49
	의빈이개농장(개농장-확언자)	80
쥬원진(강원 춘천)	이두원농장	235
	쥬수울	357
	개농장-강원 횡성	38
	개농장-강원 인제	12
쥬합산식품(경기 안양)	부일사육장	182
	우일산업쥬	144
	창글농장	555
쥬합산식품(경기 안양)	해성농장	31
	쥬고려그린	1,173
	쥬새한비료	81

<별첨11>. 육견협회 법인 신청 반려자료(농식품부)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농어촌



농림수산식품부

수신자 [redacted]

(경유)

제목 법인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회신

1. 2011.9.1.에 제출하신 법인 설립허가신청서와 관련됩니다.

2. 귀하께서 설립허가 신청하신 사단법인의 명칭은 [redacted]
'익에도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연의 종류는 가축부뉴 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처리시설 설치사업이나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및 폐기물처리 관리 등으로 법인
의 명칭과 설립목적 등이 서로 부합되지 않으며,

3.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에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일건서류를 반려하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별첨). 끝.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방역총괄과장 전결 09/16

협조자

시행 방역총괄과-1888 접수
우 427-71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 / http://www.mifaff.go.kr
전화 02-500-2081 전송 02-504-0908 / ylee147@korea.kr / 비공개(6)
기회는 공정하게! 희망은 다같이!

<참고자료1>. 2017 음식물류 폐기물의 사료화 재활용 사업장 일제 점검 체크 리스트_카라제공

2017년 5월 31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구분	상세 점검 항목	상세 점검 매뉴얼	사진
가축분뇨 처리시설 ¹⁾	퇴비장 유/무	퇴비장 등 처리시설을 따로 마련하여 처리하는지, 뜯장 아래 대소변을 방치하는 방식인지 확인 후 기재-->별도의 퇴비장 있는 경우 “유”, 뜯장 아래 방치하는 경우는 “무”로 기재	○
	후속 처리 방법	후속 처리 방법 점검(자체 퇴비화, 공동가축분뇨배출시설 이용 등) 후 자체 퇴비화시 상세 처리 방법 조사 기재 (개별 농장의 실처리 방법 상세 기재, 효소, 쌀겨 이용 혹은 그대로 방치 등등)	○
	관리 상태 (양호/ 보통/ 열악) ²⁾	-퇴비장 운영의 경우 : 양호 - 분뇨의 퇴비화 처리가 적정하여 사육장에 분뇨냄새가 없고 퇴비장은 동물과 분리되어 있다 / 보통 - 분뇨의 퇴비화가 시도되나 뜯장 아래 방치되는 형태로서 동물과 분뇨가 분리되지 않고 냄새가 난다 / 열악 - 분뇨가 퇴비화 없이 뜯장 아래 장기간 방치되며 해충과 냄새가 발생한다 -공공 축산폐기물 처리장 이용 경우 : 양호 - 분뇨가 동물사육장과 분리 보관되며 자주 수거처리하여 사육장에 분뇨가 방치되지 않는다/ 보통 - 분뇨가 동물사육장 뜯장 아래 방치되다 수거 처리시에만 제거된다 / 열악 - 분뇨가 동물사육장 뜯장 아래 3개월 이상 방치되다 수거 처리되어 사실상 분뇨가 사육장에 방치된다 *냄새 측정 방법 : 냄새 측정기를 이용하여 정량화 함/ 측정위치 - 사육장, 퇴비장,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장 3곳을 반드시 포함함	○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	폐기물 처리 신고/허가 유무	농장주가 폐기물 처리업 신고/허가를 받은 자인지 여부	
	신고/허가된 처리 방법	예) 가축 사료화, 비료화	
	(폐기물 신고/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음식물류 폐기물이 있는 경우에) 자가 반입/2차 반입의 구분	폐기물 처리 신고/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음식물류 폐기물이 있는 경우 폐기물 반입과정에 대한 내용: 음식물류폐기물을 이동 운반 재활용하는 자는 신고 또는 허가를 하여야 하나, 신고 또는 허가 받은 업자로부터 2차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공급받는 사례 빈발함. 따라서 구분 점검 필수임.	
	폐기물 반출업소 명칭 (전수 기재)과 계약 상황	음식물류폐기물 반출자 리스트와 계약서 유무 및 계약 내용. 반출자가(폐기물 처리 신고 또는 허가업자가) 수수하는 월 처리 비용 필수 기재	
	음식물류폐기물 반입량(1주당)		
운송차량	개폐장치 설치 유무		○
	폐기물 수거함 자동 리프팅장치 장착 여부		○

가축 사료로 재활용하는 과정	사료화 재활용 전 분류 방법과 기준	불순물 제거 여부 등 확인에 대한 내용: 사료관리법에 따른 남은음식물사료화의 경우 사료화 가능한 것(사람이 먹기 전의 남은 음식물 등 상하지 않은 잔반)과 급여 불가능한 폐기 대상들(사람이 먹고 남긴 음식쓰레기, 이물질과 이물질이 혼입된 잔반, 생활폐기물로서 수거된 상한 음식쓰레기: 이하 급여 불가능한 폐기물이라 칭함)을 분류하는 과정을 거침. 따라서 가축사료화 재활용 업자는 급여 전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류 과정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그 기준과 방법이 조사되어야 함.	○
	살균시설 (100도씨 30분 가열시설) 유무	사료관리법 고시에 의한 멸균 처리 시설	○
	살균시설(100도씨 30분 가열시설)의 처리 용량 (리터로 표기)	처리 시설의 처리 용량을 리터로 표기	○
	멸균한 음식물류폐기물의 냉각 시설 유무	급속 냉각하여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인지 점검하고 보관 용량 기재	○
	냉각된 폐기물 재활용 사료의 보관 시설 유무 및 보관 용량 (리터로 표기)		○
재활용 불가 폐기물의 2차 폐기 방법과 시설	'2차 폐기대상' ³⁾ 발생량(1주당)	급여 불가능한 폐기대상과 동물에게 급여 후 먹고 남긴 폐기물(이하 '2차 폐기대상'이라 함)	
	2차 폐기대상 처리시설 유무		
	2차 폐기대상 처리 방법	생활쓰레기로 배출,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처리시설에서 소각 등 구체적으로	
유기성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위생관리	폐기물 수거 용기 소독 멸균 여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함의 내용물을 사료로 사용하는 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함은 세척 소독이 필요적임 이의 실행 여부	
	가축 먹이통의 세척 및 소독 방안	가축 먹이통에 남은 남긴 2차 폐기대상의 처리 방안 점검을 위해 가축 먹이통의 세척 소독 및 잔여물의 처리 방안 조사 필요함	
	운반차량의 위생관리와 소독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차량이 가축 농장에 드나들게 되므로 전염병 방역과 위생관리상 소독 실시 필수적임. 따라서 이의 시행 여부 점검 필요함.	

- 음식물류폐기물이 가축분뇨와 함께 한 사업장에서 다루지고 폐기되는 만큼, 가축분뇨의 처리 방안이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 상황과 함께 검토 되어야 함
- 관리상태 양호/보통 /열악은 그간 환경부에서 개농장 가축분뇨 점검 기준을 제시해 오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에 현장 실사를 거쳐 점검 기준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때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에 의해 발생하는 냄새를 냄새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 정량화 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사람이 먹고 남긴 음식쓰레기, 이물질과 이물질이 혼입된 잔반, 생활폐기물로서 수거된 상한 음식쓰레기와 동물에게 급여 후 먹고 남긴 폐기물